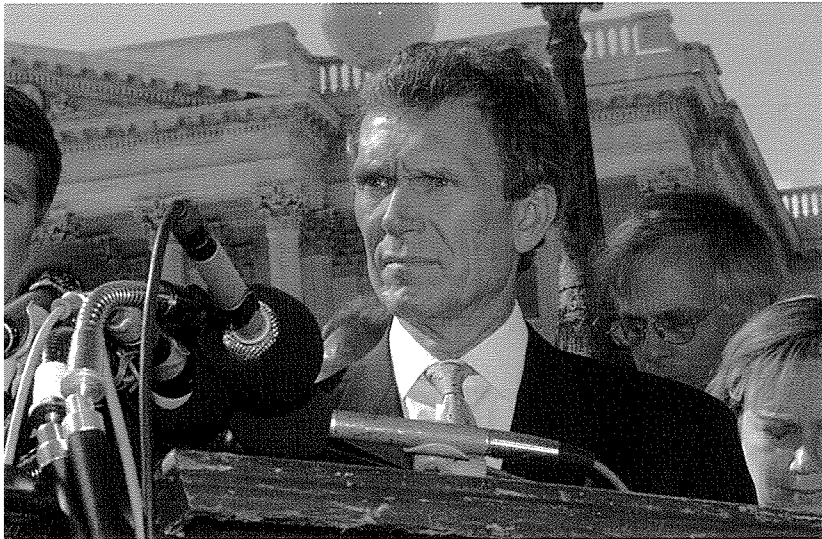


요나스 프리센은 1993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손상된 쥐의 척수에서 과학자들이 예타게 찾고 있던 '신경줄기세포'를 발견한 행운아이다. 그가 이것을 확인하는 데 6년의 세월이 걸렸다. 2000년에는 성인의 뇌에서 신경줄기세포를 발견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등 뇌 질병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 재

미국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새 원내총무가 된 빌 프리스트



gamma

지구촌 과학의 파이어니어들

요나스 프리센 | 빌 프리스트 | 로베르 에마르

단이 프리센을 미국 텍사스의 연구소로 모셔가려고 했으나 스웨덴의 실업가 마르쿠스 스토치기는 15년간의 교수 봉급과 15명의 연구원을 거느릴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프리센을 스웨덴에 잡아두는데 성공했다. 프리센은 2003년에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5년 내에 치료제의 임상실험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심장외과의사가 미 상원 원내총무에

외과의가 차기 미 상원의 다수당(공화당) 원내총무가 되었다. 미 상원은 흑백분리정책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트렌드 로트 상원의원이 사임하자 테네시주 출신 공화당 의원 빌 프리스트를 공화당의 원내총무로 선출했다. 지난 8년 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한 올해 50세의 프리스트 의원은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심장외과의와 생의학 연구에 종사했다. 그는 상원 과학기술위원회를 이끌고 미 국립과학재단(NSF) 예산을 2007년까지 2배로 증액하는 법안에서 과학 및 수학 교육 진흥조항을 제정하고 미 보건연구원(NIH)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데 이바지했다. 2002년 초 프리스트 의원은 아기를 만들기 위한 복제와 연구 및 의학치료용 세포를 만들기 위한 복제를 모두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인간복제는 금지하되 제한된 연구는 허용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상황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CERN 총장에 에마르 임명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이사회는 유럽 20개국이 출자해 운영하는 이 연구소의 신임 연구소장에 현재 국제열핵융합실험로(ITER) 소장을 맡고 있는 올해 67세의 프랑스 플라즈마 물리학자 로베르 에마르를 임명했다.

CERN 이사회가 사무총장에 입자물리학자가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것은 대형 하드론 입자가속기(LHC : CERN이 계획하고 있는 양자 및 반양자를 7TeV의 에너지로 충돌시키는 대형입자가속기로서 2007년 가동 예정)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시간에 맞추어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CERN 이사회는 당분간 CERN의 활동이 LHC 건설에 집중되어 있고 ITER 소장 재직시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ITER을 잘 이끈 경험이 있는 에마르가 연구소장으로서는 매우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다. ☞

글_현원복 | 과학저널리스트